

“국민 안보의식 강화가 국방안보의 초석”

— 「한반도 주변정세와 우리의 안보」 주제로 조찬강연회 열려...



이 날 주제발표를 통해 姜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방산업체가 심각한 어려움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고 더한층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 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한국방위산업학회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우리의 안보문제를 같이 생각해보고 공감대를 조성함으로써 방위산업 육성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조찬강연회를 5월 8일 캐피탈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정부, 학계, 연구계, 업체 등 100여명의 방산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사로 초청된 姜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환경은

4강의 세력구도하에 지극히 불안한 상태이며, 특히 적화야욕에 불타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 대다수에 번져 있는 안보 불감증과 해이해진 공동체 의식이다. 따라서 국가 안보를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사회, 국가는 내손으로 지킨다는 민족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제4회 함상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 「새로운 해양질서와 21세기 해군의 임무」를 주제로

해 군력의 역할과 우리 해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함상토론회가 5월 12일부터 13일까지(1박2일) 동해 독도 및 울릉도 인근해상의 해군 천지함에서 개최되었다.

이상우 서강대교수의 사회로 21세기의 동북아 안보와 해양안보 정세를 전망하고, 유엔 해양법 발효에 따른 주변국의 해양정책 변화가능성을 분석하여 장차 한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 함상토론회에는 관련학자와 국회의원, 청와대, 국방부, 합참, 안기부, 재경원의 정책실 무자, 대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냉전시대 이후에 동북아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힘의 공백과 그 공백에 대한 불안으로 역대 국가간 갈등의 소지가 오히려 냉전시대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인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갈등의 주 대상이 바다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해군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는 발표자의 주제 발표에 참가자들이 질의하고 함께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新 유엔 해양법과 한국의 해양 정책방향」, 「中·日의 해양정책 전망과 쟁점」, 「동북아 안보체제 발전전망」, 「亞·太지역 협력 발전 전망」, 「21세기

한국안보와 해군의 역할」, 「새로운 안보환경과 해군 무기체계의 발전 전망」, 「21세기 해군의 임무와 해군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4회를 맞이한 이번 함상토론회는 지난 92년 10월 우리 영토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독도 근해 해상, 93년 5월 우리 국토의 최남단인 마라도 근해 해상, 그리고 94년 5월 수도권 서쪽의 최전방인 백령도 해상에 이어 올해는 우리나라 주권의 상징과도 같은 독도 및 울릉도 해상에서 열렸다.

한편 동해 천지함상에서 열띤 토론을 마친 참석자들은 이튿날인 13일 울릉도 방문후 해군 전투함정의 해상기동 및 보급훈련, 헬기 이·착함 훈련 등 시범훈련도 참관하였다.

다섯번째 국산잠수함 「李從茂」함 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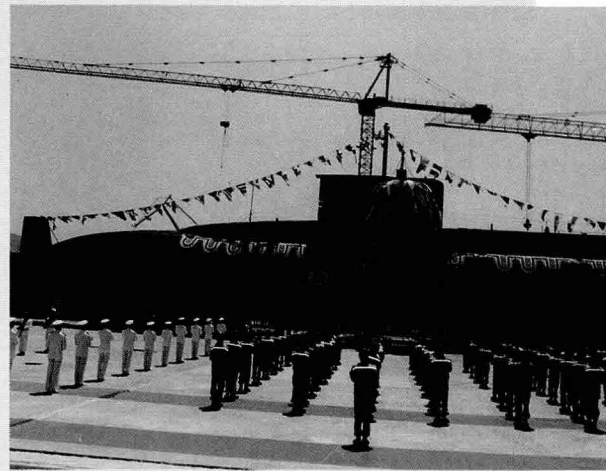
— 수중최대 속력 44km로 북한 W,R급보다 2배 빨라

순 수 우리 기술에 의해 건조된 국산 5호 잠수함 「李從茂」함의 진수식이 5월 17일 대우 중공업 옥포 조선소에서 있었다.

李養鎬 국방장관, 安炳泰 해군참모총장, 대우중공업 尹永錫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이 함수에 매달린 해수병을 깨는 해군의 전통적 관습에 따라 국방장관의 부인이 진수테이프를 끊는 것으로 진수식이 시작되었다.

「李從茂」함으로 명명된 T-209급 현대식 잠수함은 순수 우리 기술로 건조되었으며, 수중최대속력은 시속 22KTS(44km)로,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W, R급 잠수함보다(수중최대속력 12~14KTS) 2배 정도 빠르며, 어뢰나 기뢰등으로 무장하고 약 2개월동안 단독작전이 가능하여 현재 북한이 운용중인 잠수함보다 작전 수행능력 및 제반 성능면에서 월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군은 장보고함, 이천함, 최무선함, 박위



함에 이어, 다섯번째 잠수함인 이종무함을 진수함으로써 해상초계기 P-3C와 함께 북한의 수중전력을 상쇄시키고, 나아가 21세기 태평양 시대의 대양 해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고려시대의 명장 이종무는 수차에 걸쳐 왜구를 소탕했으며 세종1년(1419년)에는 전함 200여척, 병사1만7천을 거느리고 대마도를 정벌한 명장이다.

국내 독자기술로 軍用 디지털 교환기 개발

- 급변하는 현대전의 전술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



순수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기간만 6년이 소요된 TTC-95K 군용교환기는 전원공급기, 제어대, 정합대, 중계대 등으로 구성되고 디지털 時분할 다중화 방식을 채용하였으며 자체 고장진단 기능을 갖춘 첨단장비이다

삼 성전자(대표 金光浩)가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전술용 전자식 교환기(TTC-95K)」개발에 성공했다.

순수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기간만 6년이 소요된 이 군용교환기는 전원공급기, 제어대, 정합대, 중계대 등으로 구성되고 디지털 時분할 다중화 방식을 채용하였으며 자체 고장진단 기능을 갖춘 첨단 장비이다.

전술용 전자식 교환기는 연대급 이상의 부대용으로 차량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60, 120, 240, 480회선 단위로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다.

특히 전술적으로 기동을 요하고 실시간 자동교환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데이터통신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차기 전술통신체계의 NODE 교환기로 격자(格子)형으로 망이 구성되어 최적 우회경로를 자동 선택하고 추론고유번호방식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각종 교육훈련과 작전, 전술 상황에서 통신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SB-86 수동식 교환기를

전량 대체해 전 부대가 단일기종으로 운용하게 됨으로써 관리 및 정비유지면에서 경제적인 軍 운영은 물론 장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어대

가입자간의 상호접속을 위한 교환기능과 통신망의 조정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주제어장비로 신뢰성을 고려하여 이중화되어 있다.

■ 정합대

아날로그 및 디지털의 각종 가입자를 접속하기 위한 장비로 하나의 정합대에 30회선을 수용, 최대 8대(240회선)까지 제어대에 접속하여 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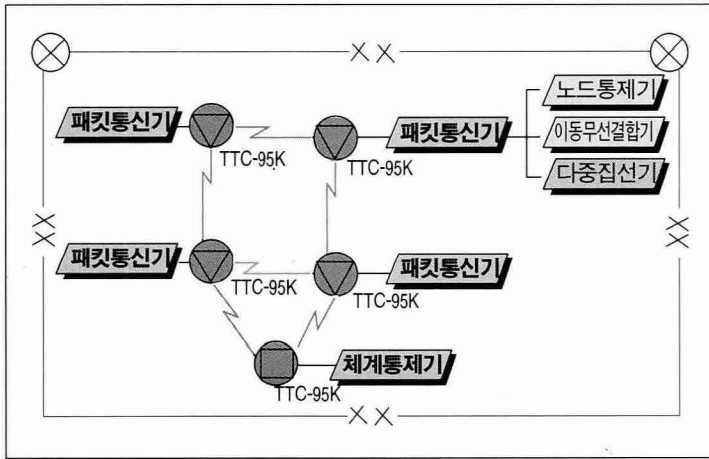
■ 중계대

각종 호(呼)에 대한 처리와 가입자의 등록, 삭제 등 정보변경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상태를 감시하고 간단한 키 조작에 의하여 시스템 데이터 변경기능을 수행한다.

■ 정류기

AC110V/220V의 전원을 공급받아 TTC-95K에 필요한 DC28V를 출력하는 장비이며 입력전원 두

TTC-95K로 구성된 전술통신망



절시에도 축전지로 자동절체되어 장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신뢰성을 고려하여 각종 보호장치가 내장되어 있다.

기적으로 향상된 자동화 격자형 통신망 구축이 가능하게 되어 급변하는 현대전의 전술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C³I 등 각종 정보체계연동운용을 위해 필수요소인 자동화/디지털화된 교환체계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때 이번에 전술용 전자식 교환기의 국내 독자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정보통신체계의 기반을 확보하게 됨은 물론 차세대 교환기 개발을 위한 방산기술 향상과 해외수출을 통한 국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軍지휘통신은 점대점 통신체계를 벗어나 성능 및 생존성이 획

軍 기동 및 공병장비 성능시험장 준공

— 완벽한 시험평가 능력으로 전력증강에 기여

국방부는 창원에 기동 및 공병장비의 각종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기동시험장 건설을 완료하고 5월 17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완공된 기동시험장은 '90년 5월부터 '95년 4월까지 600여억원을 투자해 약 60만평의 대지위에 작전주행로, 내구도 시험로, 장애물시험시설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차를 비롯하여 장갑차, 자주포, 전술차량등 군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동·공병 장비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정확한 시험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기동시험장건설로 향후 개발 장비의 시험평가뿐 아니라 양산되는 장비의 품질확인시험과 해외 도입 장비에 대한 성능 입증시험을 실시하게 되며, 나아가 민간분야의 특장차, 중장비 등 상용차량에 대해서도 승차감이나 가속능력, 제동성, 조향성, 험로주행등의 시험평가를 대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는 기동시험장에 보다 정밀한 시험계측장비를 완비하고 시험기술능력과 시험기법을 향

상시켜 국가공인 시험장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군의 기동·공병장비에 대한 완벽한 시험평가능력을 갖추게 됨은 물론 민간분야의 상용차량에 대하여 국가에서 성능과 품질을 공인하게 됨으로써 수출등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